

‘스마트팜 혁신밸리’ 미래 농업 이끈다

고흥군, 실질설계 용역 본격화...ICT 기술 접목
1천100억 투입 청년교육센터·실증센터 등 구축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조감도)가 내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미래 농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스마트팜이란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정보통신기술(ICT)이 농업에 적용된 것으로 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온도, 습도, 햇빛량 등을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측정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제어장치를 가동해 농작물 재배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흥군은 스마트팜 기술 연구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조성사업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고흥만 간척지 30ha에 총사업비 1천1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고흥군 유사 이래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스마트 팜 기술 보급을 위한 청년 교육센터(4.5ha), 청년 교육센터 수료자를 중심으로 3년간 스마트 팜을 임대해 스마트 팜 운영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임대형 스마트 팜(6ha), 스마트 팜

에 사용할 농·기자재를 실험하는 실증단지(4.5ha)가 핵심이다. 연계 사업으로 군 소유 부지에 지역 내 거주 농업인 또는 청년들의 신청을 받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온실, 스마트 팜 운영으로 귀농인을 염두에 두고 조성할 청년 보급자리 임대주택(30호)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지난 3월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 2차 대상지로 선정된 뒤 공직자, 기관, 사회단체, 이장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5월엔 전남도와 군이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6월에는 군 사업추진단 TF팀 발대식을 갖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주 3회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8월 관리·처분계획

승인, 10월 편입부지 매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까지 완료했다. 또한 기반 조성 실시계획용역 관련 협의와 토취장 부지 지반 조사도 끝났으며 청년보육 세부 추진계획 협의 및 유리온실 현장 견학 등 스마트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고흥군은 행정 절차 이행 후 내년 3월부터 입찰 공고 등을 통해 사업 발주 및 착수에 들어가 청년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작물 생육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초보 농업인이 라도 최적의 생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 인구 유입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기자재 실증 단지는 농



업 R&D 사업의 산실로 우리나라 미래 농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귀권 고흥군수는 “민선 7기 슬로건 ‘고흥! 새로운 미래를 날다’라는 문구처럼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농업의 새로운 미래로 정착될 것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신용원 기자



“사랑의 연탄 왔어요” 롯데캐미칼 봉사단은 최근 여수시 충무동 취약계층 세대에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다. 봉사단 35명은 고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가구 7세대에 연탄 2천100장을 배달했다. 김순조 롯데캐미칼 사회공헌담당 대리는 “어르신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시 제공

고흥군 인구정책 팔목성과 주목

울 상반기 인구 순유입...5개년 종합계획 추진 효과 분석

고흥군이 추진 중인 인구 정책이 울 상반기 인구 순유입으로 이어지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호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전남도 2019년 상반기 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22개 시·군 중 고흥군과 나주시, 순천시 등 3개 지역만 인구 순유입 현상이 나타났다. 고흥군의 인구 순유입은 민선 7기 인구정책과 신설과 함께 고흥愛 청년유턴, 아이행복, 귀향귀촌 등 3대 전략 9대 과

제 50개 시책을 담은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고흥군은 올해 상반기 ▲내사랑 고흥 기금 100억원 조성 ▲가업승계 청년 지원 ▲귀향귀촌 집들이 지원 등 인구유입을 위해 차별화된 시책을 펼쳐왔다. 또한 인구문제 극복에 군민 참여 유도를 위해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한 고흥 살기 군민 다짐대회’, 일자리창출 위원회와 저출산 극복 민·관네트워크 구성,

민간 주도 행복마을 조성, 지역사회단체 출산 축하꾸러미 전달 사업 등 인구 유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왔다. 고흥군은 하반기에도 ▲귀향귀촌 유치 우수마을 지원(최대 1억원) ▲귀향청년 U-turn 정착 지원(1천만원) ▲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1천만원) 등을 통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고흥군은 지난 9월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교, 2회에 걸쳐 80여명에게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9-13일(5일간) 3기 교육을 실시한다. /고흥=신용원 기자

여수시, 민선 7기 93개 공약사업 ‘순항’

보고회 개최 추진상황 점검...26개 마무리·67개 진행 중

민선 7기 권오봉 여수시장의 93개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여수시는 2일 “민선 7기 권오봉 시장 공약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권 시장과 31개 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약이행 실적을 공유하고 문제점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나병권 여수시 기획예산과장은 총괄 보고를 통해 “현재 민선 7기 공약사업 93개 중 26개를 마무리했고 64개는 추진

중”이라며 “나머지 3개 사업은 국비 확보 등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선 7기 여수시장 공약사업은 ▲시민공감 감동시정 9건 ▲균형있는 상생경제 24건 ▲사람중심 나눔복지 13건 ▲품격있는 문화관광 27건 ▲살기좋은 정주환경 20건 등 총 5개 분야 93건이다. 이 중 완료된 사업은 낭만포차 이전, 음식·숙박업소 물가정보 앱 구축,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 확대, 도서지역 어르신 목욕탕 이용권 지급 등이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시립박물관 건립, 섬 박물관 개최, 화태·백야 연도고 건설, 이순신 스토리텔링 체험관광 모델 개발 등이 있다.

권오봉 시장은 보고회에서 “공약사업은 여수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사업 추진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국비와 민간 투자가 필요한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시장은 지난 7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2019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국지도 22호선·해안가 ‘경관지구 지정’

여수시, 돌산·소라 등 8곳 290만㎡ 건물 높이 등 제한

여수시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해안가 일부가 경관지구로 지정된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여수시가 입안한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 및 해안가 290만㎡에 대한 경관지구 지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관지구는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화양면 안포 ▲화정면 백야대교-백야등대삼거리 ▲화양면 용주-호두 ▲화양면 대사이-구미 ▲돌산을 무슬룩-평사 ▲돌산을 월전포-안골전 ▲돌산을 계동 해안가 ▲돌산을 방죽포-소울 해안가다. 이들 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3층, 12m

이하로 한정되고 자연순환시설, 공장, 묘지 관련시설 등의 임지가 제한된다. 여수시는 12월 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해 경관지구 지정을 발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국지도 22호선과 해안수변측 일원 559만㎡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1년 이상 앞당겨 해제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여수밤바다 주변과 도시지역 내 해안 수변측 일원을 특화 시가지 경관지구와 고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여수지역 수변측 대부분이 경관지구로 지정 관리될 전망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여수시, 블로그 어워드 ‘우수상’

여수시가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수시는 2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사)한국블로그산업협회가 주관한 ‘제9회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는 블로그를 활용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객과 공감, 소통 활동에 두각을 나타낸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정, 시상하는 상이다. (사)한국블로그산업협회는 지난 달 11일부터 21일까지 200여개 기관·단체를 디자인, 콘텐츠, 마케팅 등 18개 지표로 평가했다. 여수시는 네이버 블로그 ‘힐링여수야’를 후보로 등록해 전 부문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힐링여수야’는 소통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14년 7월 개설됐다./여수=김진선 기자

초대장

귀하의 상식을 파괴한 AutoXML 전국그랜드세미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피해구제,불황극복)

- 보여줄 수 없는 기술은 모두 스캠(사기)이다. 진짜가 왔다! -

- W3C표준기반의 AutoXML 플랫폼
- 4차 산업혁명 필수 원천기술
- 탈중앙화, 데이터 혁명!
- AutoXML 없이 4차 산업혁명은 사상누각!
- AutoXML 없이 AI 보안 빅데이터 신뢰는 구호일뿐!

- 일시 2019년 12월 7일 오후 2시
- 장소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컨벤션센터) - 4층 컨벤션홀 -
- 참석자 전원 시은품 증정
- 추첨권 당첨자 무제한 상품 제공
- 문의 010-3070-0438(담당자:주유진)

주관 인세이브 대표사업자 협의회